

지구 전체적으로 2021년 7월이 역대 가장 더웠다



2021.8.13.자 NOAA 누리집 기사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미국해양대기청(NOAA)의 국가환경정보센터(NCEI)는 전지구적으로 2021년 7월이 역대 기록중 가장 더운 달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NOAA 처장 릭 스피라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장 더운 걸로 1등이라니 최악의 명성입니다. 7월은 통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달이다 보니 2021년 7월은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뜨거운 7월이자 달이 된 것이죠. 이 새로운 기록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밝아가고 있는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경로상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일 것입니다.”

숫자로 보는 2021년 7월

- **전 지구:** 육지 및 해양 표면의 온도를 평균한 7월의 지구 전체 표면 온도는 20세기 평균인 15.8°C 보다 0.93°C 높음. 이는 142년 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7월. 이전까지는 2016년 7월이 가장 더웠는데 (이후 2019년과 2020년 7월에 동률을 이룸) 이보다 0.01°C 높음.
- **북반구:** 육지 표면만의 평균온도는 역대 기록 중 가장 더운 7월. 이전까지는 2012년에 세운 기록이 최고였는데, 이보다 1.54°C 높았음.
- **지역 차원의 기록:**
 - 아시아는 기록상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냈으며 이전까지 최고였던 2010년의 기록을 꺾.
 - 유럽은 금년 7월이 2018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뜨거웠음. 2010년 7월과 동률.
 - 북미,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는 금년 7월이 역대 가장 뜨거운 7월 상위 10위 안에 들었음.

극심한 더위와 지구 기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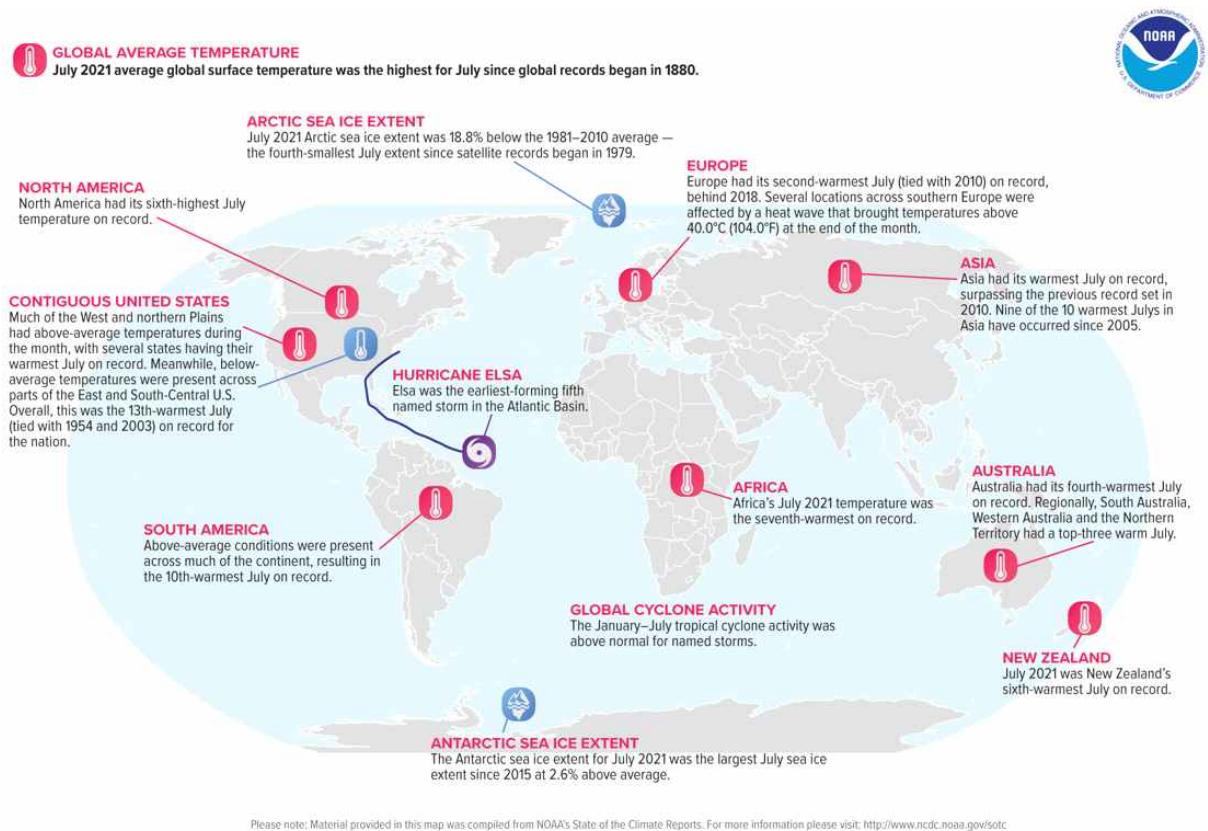
NCEI의 세계 연간 기온 순위 전망(Global Annual Temperature Rankings Outlook)

에 따르면 지난 7월의 데이터로 비추어 볼 때 2021년은 전 지구적으로 역대 가장 따뜻한 10년 안에 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NCEI 월보에 실린 7월의 극한 더위는 이번 IPCC 제1실무그룹 6차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는 기후의 장기적 변화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NOAA 처장인 스펀라드 박사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기후가 변화하는 방식에 대한 가장 최신의 평가를 내렸고 그것이 바로 이번 IPCC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인간의 영향이 명백히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으며 그 영향이 지구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은 물론 빠르게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에 지구촌에 발생한 역대급 기록 및 현상



NOAA의 ‘7월 지구 기후 보고서’ 에 실린 여타 주목할만한 사항

- 반구별 해빙 면적
 - 미국 빙설 데이터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 북극의 해빙 면적은 43년 기록 중 네 번째로 작음. 이보다 작았을 때는 2012년, 2019년, 2020년의 7

월이었음.

- 남극의 7월 해빙 면적은 평균 이상이었고 2015년 이후 가장 컸음. 이는 기록상 8번째임.

- 열대 지방은 평상시보다 분주
 - 대서양에서는 2021년 허리케인 시즌 들어 가장 이른 5번째 폭풍 엘사(Elsa)가 7월 1일 형성.
 - 태평양 동북부와 서부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각각 세 차례의 명명된 폭풍을 기록.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7월까지) 전 세계 열대 저기압 활동은 명명된 폭풍의 개수로 보면 평년 수준을 상회.